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5. 7.(목) **국회 본회의 의결 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뜻 모아 ‘서해구’로 새출발

-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오는 7월 1일부터 종전 “서구(西區)”에서 “서해구(西海區)”로 명칭 변경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천광역시 “서구(西區)”를 “서해구(西海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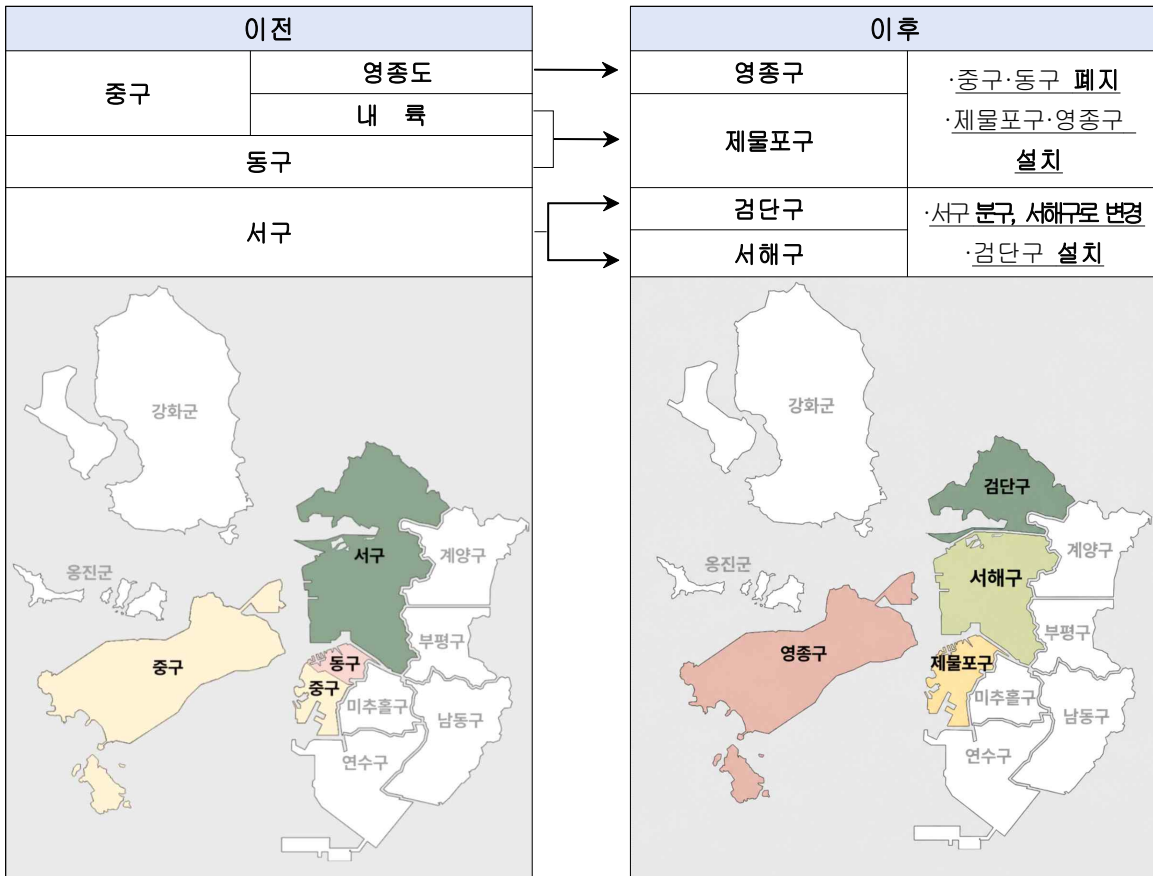
이번 명칭 변경은 1988년 북구(현 계양구와 부평구)에서 분리 설치되어 현재의 이름을 명칭을 사용해 온 서구가 방위 중심의 이름으로 인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하여 추진했다.

이에 따라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와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새로운 이름으로 서해구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지난해 8월과 9월에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와 인천광역시 의회 의견 수렴도 거쳤다.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해구로 새 출발하게 되며, 원활한 명칭 변경을 위해 법 시행일에 맞춰 공인·공부 정비, 표지판 교체, 전산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명칭 변경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 출범 일정(7.1. 예정)과 함께 추진하여 전산시스템 전환에 드는 비용과 주민 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 서해구 명칭변경 >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자치분권지원과	책임자	과 장	서상우 (044-205-3321)
		담당자	사무관	김민규 (044-205-3332)

